



풍성한 삶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소 비자학 전공자들의 주된 관심은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와 소비시장 내의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소비시장시스템 자체의 문제와 구매력 부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구와 상담·구제활동을 한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류씨는 벼슬이 높아서 양반이 아니라 도덕이 높아서 양반이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하루는 한 제자가 찾아와 인턴사원으로 일하는데 월급이 5만원이라고 했다. 나는 그 제자보다 10년이나 더 학교에 다녔고 그 후에도 긴 세월을 연구하며 보냈으나 월급은커녕 도로 돈을 주고 일한다. 남는 것이 없는 장사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막상 시장경쟁 대열 참여자로 아동바동하지 않고 살기로 마음먹으니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야된다고 닥달하지 않게 되었고, 삼남매는 엄마 믿다가는 큰일나겠다고 자각을 하여 스스로 공부하여 제 갈 길들을 가고, 나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남겨 둔 사회 내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친구가 빈민에게 주라고 헌 옷을 주고 갔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옷을 골라서 입었더니 딸이 엄마는 구제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목사마누라처럼 악랄하다고 비판을 했다.

그 후로는 헌옷 기증자에게 내가 좀 골라 입어도 되는지 허락을 받는다. 남편이 한달 생활비로 210만원을 주는데 그 돈의 반을 빈민연구와 상담에 써도 이상하게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는다. 빈민들의 생활을 보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느끼니 월급쟁이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수 없고 남의 옷도 다 내 옷이니 옷걱정할 일이 없고,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저축을 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언젠가는 재산을 다 정리하여 사회에 내놓고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에 의지하여 살겠다고 마음먹으니 노후 걱정도 없다.

그렇다고 꼭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페라를 무지 좋아하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얼마든지 최고 기량의 작품들을 골짜로 골라서 감상할 수 있다.

가끔씩은 음악회에 가기도 하는데 좋은 음악을 들으면 머리 속을 다 끄집어내어 흐르는 물에 씻은 듯한 감동과 확장적 자아를 느낀다. 이런 느낌은 수없이 많은 날 날밤을 새우며 통계를 돌리다가 꼭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었을 때에 느끼는 학문적 희열과 비슷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하여 애태우던 빈민이 “되었어요. 감사해요.”라는 인사를 전해주는 전화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과 비슷하다.

빈곤문제연구소 일을 하면서 더욱 행복을 느낄 때는 마음씨 따뜻한 후원자들을 만나서 마음의 교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그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워하며,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사회’로 이행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사회의 장래가 밝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낀다.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고 그들과 친구가 되니 이보다 더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행복감 때문에 소박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백화점에서 시식용 음식을 먹었을 때 점원에게서 사지도 않으면서 먹고만 간다고 쏘아 부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책피하거나 속상하지 않다. **www**